

# 부산시,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

전남·경상도와 법·제도 개선 협력  
남해안 3개 시·도 차원 공동대응  
부산·광양항 물류 거점 토대로

남해안 3개 시·도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부산시는 최근 전라남도·경상남도와 함께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중앙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대표항만인 부산항과 전남 광양항은 그동안 항만 물동량에 비해 하역·환적·보관등 물류 기능에 치우치고 제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부산항 신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공업체의 입주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아울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

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최 의원이 재발의 ('20.6.3.)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도 지난 6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세청 등 중앙부처 및 관련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서비스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조속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남해안 3개 시·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남해안 상생발전 협의회 협약서' 체결에 따라 3개 시·도로 구성된 '남해안 항만물류도시 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3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항만배후단지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 여건 조성

△제조업 입주기준 완화 △제조업과 물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업종 허용 등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번 건의가 부산항과 광양항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의 복합거점이 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3개 시·도의 공동 협력을 통해 조속히 법령이 개정돼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인 부산 신항 '남·くん' 배후부지 등이 글로벌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할 고부가가치 산업공간으로 변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논의가 활발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더불어 남해안 공동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논의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본조성사업 선정 사진

## 영양군

###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 선정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1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본조성사업에 석보지구가 선정되어 국·도비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본조성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 30㏊ 이상, 사업범위는 반경 3km 이내이며, 사업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된 석보지구는 화매리, 신평리, 택전리 일대의 과수재배 집단지역에 2년간 국비 11억 3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1억 9000만 원 등 총사업비 14억 1000만 원이 투입 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경북도, 코로나 위기기구 지원

23개 시·군 전담팀 구성  
5만 가구 대상 256억 지원

경북도는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기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위기기구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기기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5억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

지(생계지원) 대상자와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기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5만 대상기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6억 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중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2020 전남 귀어 사이버 엑스포 홈페이지 이미지

## 경북도

### "지진안전 인증 받으세요"

경북도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최대 3000만 원 까지, 인증수료는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해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

## 전남도, '귀어스몰엑스포' 온라인 개최

귀어·귀촌 지원정책 소개  
특산물·빈집 등 영상 제공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수협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12일부터 23일까지 귀어 희망 도시민과 온라인으로 만날 '제3회 전남귀어스몰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의 집합이 어려워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전남의 다양한 어촌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어촌계장 및 우수 귀어인 등과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면접하는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스몰엑스포 누리집을 개설했다. 누리집에서는 여

수, 보성, 영광, 해남, 강진, 완도, 고흥, 함평, 진도 등 9개 시·군 24개 어촌계 현황을 비롯 주민들의 귀어 유치의지, 특산물 및 빈집 소개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며, 시·군별 귀어·귀촌 지원정책 등도 소개한다.

엑스포 참가자들은 우수 귀어인과 귀어·귀촌 전문가, 어촌계장 등을 상대로 상담과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면 모바일 음료권도 받을 수 있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이번 엑스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달 간 전남 어촌에서 머물며 현장체험 할 수 있는 '도시민 전남 어민 되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영덕 사랑카드

## 영덕군

### 카드형 지역상품권 출시

영덕군은 한국조폐공사, NH카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카드형 영덕사랑상품권 '영덕사랑카드'를 12일 출시한다.

영덕사랑카드는 충전식 체크카드(NH은행) 형태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충전 및 충전이 가능하다.

영덕사랑카드에 5000원, 1만원, 5만원 단위로 상품권을 충전하면, 관내 영덕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NH카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영덕사랑카드는 기존 지류형 영덕사랑상품권처럼 상시 5%, 특별기간 10%의 할인금액이 적용되어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영덕(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 안동시, 세계유산축전 공모 사업 선정

문화재청 주관, 국비 21억 확보



안동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해 2021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 선정 됐다. /안동시

2021 세계유산축전 공모사업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자산인 세계유산을 전 국민과 향유하고 고품질의 문화유산 복합 콘텐츠를 기획·보급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서를 받아 서면심사(1차) 및 발표심사(2차, 발표PT 포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시는 "안동이 만든 세계유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위기기구를 적극 발굴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기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보유재산은 시 지역의 경우 3억 5000만 원, 군의 경우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9월 9일자 주민등록상 가

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를 비롯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원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전남=양수녕 기자